

[찬양과 큐티 2]  
“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 
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…”

유지연 집사 / 1998 / 페이지 수: 1

이 찬양은 구약시대의 한 선지자의 아름다운 시이다. 하박국 선지자! 그는 세 장으로 씌어진 이 짧은 책 속에서 하나님께 두 번 질문하고 두 번 응답 받는다. 그리고 3장에서 자신의 수금에 맞춘 기도가 시작되는데, 17절에서부터 한편의 아름다운 감동의 서정시로 끝을 맺는다.

그의 첫 번째 간구는 그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강포, 무질서, 분쟁, 혼란, 영적침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인데(1:2~4) 마치 오늘날의 우리사회와 같은 상황이다. 이때 하나님은 “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,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…”(1:5~11)라고 응답하신다. 그러나 하박국은 “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?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도록 잠잠하시나이까?”하며 깜짝 놀라 불평을 한다(1:12~13).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도구로 왜 악한 백성을 택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.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응답을 하신다.

“오만한 자는 패망하나 의로운 자는 승리할 것이다.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(2:3,4)” 바로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는다. “의인은 여호와를 믿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.”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 시작한다.

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그저 불평할 때가 많지 않은가? 세상의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해를 당하고, 마치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경우를 보게 되지 않은가?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않은가?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응답을 하신다.

“그들은 패망할 것이고, 의로운 자는 승리할 것이다.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”

그렇다.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“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, 가진 재물이 없으며, 세상 명예 없으며, 건강한 몸 없으며, …없으며, …없으며”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,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되기를 기도한다.

<유지연 집사 / 헛서뮤직 대표>

\* 출처 : QT신문